

하람이 안녕.

날씨가 참 덥지? 아바도 퇴근할때 주차장에 가면 자동차가 불덩이가 되어 있어 너무 힘들더라. 그래도 해가 지면 조금은 낫기는 하지만. 해가 지면 이번에는 눅눅한 습기로 숨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 이런 날씨에 밖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어.

원래 편지를 쓰는 것도 규칙이 있단다. 우선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은 후 편지의 본주제를 적고, 이후 상대방에게 궁금한 것을 적은후 글을 맺는 인사를 한후 날짜와 이름을 적고 끝내는 거야. 그리고 편지지를 접는 방법이나 편지지에 사용할수 있는 필기구의 종류나 색까지 다 정해져 있어.

그런데 뭐, 요즘은 이메일 말고는 아무도 편지를 쓰지 않으니 꼭 지킬 필요는 없겠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편지를 볼펜으로 쓰다보니 손가락에 힘을 너무 많이 줘야해서 어쩔수 없이 연필로 쓰며 하는 변명이라나. 아무래도 연필은 볼펜보다 미끄러짐이 덜해서 통증이 적거든. 원래는 편지를 연필로 써서는 절대 안되지만 이해해주렴.

그럼 지난편지에 이어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계속 할게.  
할아버지의 대학생활은 평범했던것 같아. 당시 대학생들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고 서울대학교를 다니셨으니 더 대단한 것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일이 있지는 않았나봐. 할아버지의 대학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에는 모두 가난했기 때문에 잘 사는 집 친구가 당연히 식사하면 돈을 내줬다는 것. 그리고 동기중 하나가 "삶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생각하며

학교를 다니다 자살했다는 것. 그리고 대학생활을 하며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있구나. (당시에는 선이라는 것을 봐서 결혼하는 것이 흔한 시기였는데 두 분은 연애 결혼을 하셨단다) 두 분의 연애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좀 웃기더라. 할머니의 고향에 사촌 오빠가 공부를 잘 하셔서 서울대 농대를 가셨거든. 당시에 대학교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가 잘 되어 있었는데 그 할머니의 사촌 오빠가 고향의 여동생들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셨데. 사실 소개라고 해봐야 직접 만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적당히 마음에 드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여동생들 주소랑 이름을 알려주고 펜팔(편지 친구) 하라고 주선을 해주는 것이었어. 웃기는 것은 그분이 자기 여동생에게는 마음에 드는 친구들을 소개해 주고 할머니에게는 적당히 얼굴만 아는 할아버지를 주셨는데 결국 진짜로 결혼까지 하게 된 사람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뿐이었데. 아무튼 두 분은 서로 편지를 주고 받으며 친해져서 나중에 할아버지가 군대에 계실 때 휴가를 받으면 할머니가 계신 대구까지 내려오고 그러셨나봐.

할아버지는 대학 생활을 하시며 ROTC라는 것을 하셨어. 학군사관이라는 것인데, 학기중 그리고 방학때 집에 가지 않고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야. 군사훈련만 받으면 남들 다 놀때 뭐가 좋다고 저것을 하나 싶은데, 이렇게 훈련을 받고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장교로 임관하게 되어서 그냥 군대를 간 사병이랑은 다른 대우를 받거든. 물론, 할아버지가 군대에 뜻이 있어서 ROTC에 신청을하신 것은 아니고 당시에는 대학생이 너무 적었고 주위의 친구들이 모두 신청하길래 별 생각없이 지원하셨다고 하더라. 그 시절에는 군대의 장교들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잘 없던 시절이었거든. 아무튼 그래서 할아버지는 중위로 군대에 들어가셔서 대위로 제대(군대를 마칩)하셨어.

할아버지는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신 적이 없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바바도 아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세 가지 정도 이야기는 기억난다.

첫째는 할아버지께서 얼마 되지도 않는 군인 월급을 받아 "세계의 대사상"이라는 책 한 권(세트로 되어있는 책의 전권)을 딜럭 사버려 생활비도 제대로 없이 책만보고 지낸 이야기. (그 책은... 한 20년 정도 가지고 계시다 용인 쪽으로 이사하실때 버리셨어.) 그리고 두번째는 군대에서 휴가가 나오면 할머니를 만나려고 기차와 버스를 타고 대구까지 내려오셨는데 정작 당신은 돈이 없어 차비만 달랑 들고 왔다는 것. 그래서 매번 직장을 다니고 계셨던 할머니가 밥을 사주셨는데, 자기 돈도 아니면서 매번 열치없이 고기먹고 싶다고 하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에서 대통령 선거에 반대표 찍었다가 죽을뻔한 이야기가 있단다.

이 군대에서 투표한 이야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당시 대통령은 박정희였거든.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이 된 독재자였어. 원래 모든 선거는 비밀 투표였으니까 당연히 아무도 모르게 투표를 해야했지만 군인 출신이 대통령인데다 독재시절이었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투표를 할 때 군인들을 모두 연병장(군인들이 훈련하는 거대한 공터)에 모아놓고 "찬성 손들어", "반대 손들어" 이렇게 지시를 한후 그 숫자를 세서 보곤했나봐.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반대에 손을 드신거야.

투표(?) 직후에 당장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투표후 할아버지는 강제로 부대장(부대의 최고 대장)의 면담을 당했다고 하시더라.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대장이 차나 한잔 내어주고는 부모님 뭐 하시냐 형제는 어떻게 되냐 등 인구조사 하듯 몇가지 물어보고는 투표용지를 내밀며 찬성 적으라고 했데. 그리고 할아버지도 암소리 안하고 찬성여 표시를 했고.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하고 웃긴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길거리에서 잡혀가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흔한 세상이었던단다. 그러니 사실은 당장 중앙정보부라는 곳의 무서운 사람들에게 끌려가 고문 당하고 인천 앞바다의 시체로 발견되어도 놀랍지 않은 일을 하신 거란다. 아무래도 할아버지는 은근히 바른 말만 하는 기질이 있으셨나봐.

아무튼 이후 조용히 병역을 마치신 이후 대학교를 다니셨고 졸업을 하셨는데, 졸업하시고 처음 들어간 회사가 지금은 없어진 한독이라는 회사의 개발실이었던단다.

음... 당시 그 회사는 이름도 없는 기업이었던 것 같아. 당시 회사의 창업주는 다른 일로 돈을 많이 벌어들인 사람이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두엇을 할까 고민하다 시작한 것이 시계회사였던단다.

요즘은 시계라는 것은 벽에나 붙어있는 것이고 스마트폰만 보면 몇 시인지 알수 있지만 그 시절에는 시계가 매우 드물었던단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시계는 지금 아버지의 손목시계처럼 태엽과 톱니바퀴로 작동하는 것이었는데 평범한 시계 하나도 요즘 가격으로 200~300만원 정도 했거든. 그래서 보통 시계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 큰 선물로 받을수 있는 것이었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입사하던 시기즈음에 쿼츠 파동(Quartz shock)이라는 것이 일어나. 이게 뭐냐하면 전자공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수정에 전기를 가하면

1초에 정확히 정해진 숫자만큼 진동을 한다는 것을 알아낸거야. 이것 수정 발진기(quartz oscillator)라고 하는데, 이것 이용하면 아주 싼 가격에 정확히 작동하는 시계를 만들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는 흔히 말하는 전자시계 개발의 창립 멤버로 일을 시작하신 것이고.

할아버지는 그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딸 그대로 고속승진을 하셨어. 어느정도였냐면 40대 초반에 이미 회사의 이사로 공장장이 되셨단다. 할아버지는 능력도 있으셨지만 당시 창립자가 할아버지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회사가 안정된 이후로는 출장을 가실때마다 전세차에 할아버지를 데리고 다니셨데.

(물론 이것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도 생겼는데 할아버지는 출장을 너무 많이 다니셔서 그런지 지금도 해외여행은 지긋지긋하다고 하신단다)

할아버지의 인생을 생각하면 이 때가 가장 황금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당시 할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회사의 중역이 되셔서 회사에서 전용차도 나오고 심지어 운전기사도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물론 당시 회사 체육대회에서 배구를 하다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된 일이 있었지만 아바 기억으로는 그렇단다.

할아버지의 삶은 할아버지께서 한독을 그만두시면서 많이 힘들어졌어. 직장을 그만두신 이유는 사실 지금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처음에 한창 잘 되던 시계사업도 점차 기울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인력을 줄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할아버지께서 내 부하직원들을 내 손으로 자를수는 없다며 사직서를 내셨단다. 평소 할아버지를 예뻐하던 회장님이 "사업을 완전히 접어도 너는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했는데도 회사를 박차고 나가셨어.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예고... 쓰다보니 벌써 다섯장이 되었구나. 아빠 엄지 손가락이  
요즘 영 시원찮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쓸게. 혹시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할아버지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할아버지는 아빠보다 더 말이 없으셔서  
어떨지 모르겠구나.

아무튼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렴.

2025. 07. 29.

사랑하는 아빠가



p.s. 나중에 인터넷에서 "돌핀"이라는 시계를 검색해 보렴.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시계란다.